

광주시 빚어울수



1회용품 '딜레마'

“페트병 사용으로 환경오염 부추긴다” 지적에 고민 지난해 81만병 제작...수돗물 인식 개선 효과 속 내년 수영선수권 사용 필요한데 환경부는감축 지시

광주지역 수돗물 브랜드 제품인 '빚어울수'가 1회용 페트(PET)병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수돗물을 병에 넣어 브랜드화한 이른바 '병입(瓶入) 수돗물'을 생산하는 자치 단체 30곳 중 지난해 기준 6번째로 많은 페트병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빚어울수 81만 7000병을 생산했다.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는 전국 30개 자치단체 중 서울시(602만 4000병), 인천시(319만 4739병), 대구시(282만병), 부산시(246만 6720병), 대전시(151만 6000병)에 이어 6번째로 많은 생산량이다. 지난해 병입 수돗물 전국 총 생산량은 3516

만 4786병(한국수자원공사 1207만 8291병 포함)이다. 병입 수돗물은 지난 2001년 서울시가 '아리수'를 출시한 뒤 호응을 얻자, 광주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생산 열에 합류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상수원인 동북수원지 원수를 용연정수장에서 정수해 '빚어울수' 브랜드로 350ml(홍보용)와 1.8l(비상급수용)짜리를 생산하고 있다. 2007년 10만병이던 생산량은 지난해 81만병까지 늘어났고 매년 평균 70만병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병입 수돗물은 그동안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비상 급수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경기도 스프레이 수거대

란으로 불거진 1회용품 줄이기 열풍과 맞물리면서 우선 감축 대상으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일단 광주시는 빚어울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행사에 홍보·식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군, 2013년 태풍 '하이옌'이 덮친 필리핀 등에 빚어울수를 지원한 사례 등을 들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 시는 특히 아직까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빚어울수 지원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당수의 빚어울수가 긴급 급수용보다는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다생산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피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생산된 빚어울수 중 홍보용(350ml)이 93.3%(76만 3000병)을 차지하는 등 매년 생산량의 90%가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아리수'(서울)의 경우도 최근 3년간 총 1924만 3540병이 생산됐는데 홍보용(350ml)으로 1197만여병(62.2%)이 쓰였고, 단수나 재해지역 비상급수용(2l)은 67만여병(3.5%)에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환경오염 지적을 피하고자 지난 2013년 유리병(375ml) 2000병을 샘플용으로 제작하기도 했지만, 제작설비 교체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무산됐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또 다른 대안으로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용기 경량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빚어울수의 용기 중량(350ml)은 23g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중량기준(최적 14.4g·권고 16.2g)을 초과하고 있어서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최근 광주시에 빚어울수 생산량 감축 계획안 통보를 지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어 빚어울수 생산량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며 "2020년부터 생산량을 감소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귀국길 우즈벡 노동자깜빡 잠든새 '날벼락'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서 여권·여비 든 가방 도난

경찰, CCTV 분석 50대 검거 귀국으로 돌아가려던 외국인 노동자의 가방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외국인 노동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심도(59)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 57분께 광주시 서구 광전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대합실 벤치에서 잠시 잠을 자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5)씨의 여권과 1650달러(한화 184만원 상당), 휴대전화 등 2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심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터미널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터미널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역으로 향하는 피의자를 확인하고 광주역 대합실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동종수법의 전과자와 비교 분석한 끝에 지난 3일 동종전과판 12범이나 되는 심씨를 검거했다. 심씨는 훔친 돈을 모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귀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 국제공항행 고속버스를 타려다 이 같은 일을 당했으며,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도움으로 지난 3일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구례서 초등 담임교사 교실서 숨진 채 발견

수년전부터 우울증 앓아 목격한 초등생들 불안감 호소

구례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숨진 교사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초등학생 6명은 심리적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교사는 수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오면서 6개월 가까이 휴학을 하는 등 학교 생활을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28분께 구례군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담임교사인 A(45)씨가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을 학생들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동료교사가 오전 11시

께 교실에 앉아 있는 A씨를 봤다는 진술이 나오며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교사의 반 학생들은 이날 A교사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3, 4교시에 학교 도서관 등에서 다른 교사로부터 스포츠 클럽 수업을 받았다. 숨진 A교사가 사용하던 교실 내 컴퓨터에서는 "교적이 적성에 맞지 않다. 이제는 끝내고 싶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적힌 A씨의 유서 파일이 발견됐다. 경찰은 목을 맨 흔적이 뚜렷한데다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부검 없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구례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숨진 A씨를 목격한 학생 6명과 동료교사 등에 대상으로 집단심리 상담·치료 등에 나설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안심귀가 걱정마세요” 광주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와 북구청 일자리창출팀 직원들이 11일 광주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 안심귀가 친절캠페인을 열고 홍보용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장성서 트레일러 넘어져 기름 8t 유출...교통 큰 혼잡

11일 오전 5시 52분께 장성군 장성읍 한 도로에서 아스팔트유를 싣고 달리던 45t 트레일러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스팔트유 8t가량이 도로로 유출돼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현장 수습에 나선 경찰관 1명이 미끄러지면서 가벼운 상해를 입기도 했지만, 운전자는 별다른 상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 당국은 장비 8대와 인員 19명, 부직포 등을 동원해 긴급 방제작업을 했다. 다행히 누출된 아스팔트유가 도로 위에서 굳어 주변 환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상향등 켜고 빵빵 거리자...보복운전 벌금 300만원

전주지법은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에서 쏘나타 운전자 B(여·49)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차량 앞에서 3~4차례 급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사고 위험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게임서 운전 배운 초등생, 엄마 몰래 7km 달려 차량 10대 ‘짱’

○한 초등학생이 평소 게임을 통해 습득한 운전 실력(?)으로 엄마 승용차를 몰고 도심 구간을 7km정도 운전하다 차량 10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11일 대전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 A(9)군이 엄마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몰래 차량 열쇠를 갖고 나와 지상 주차장에 있던 엄마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동구청 지하주차장을 들린 뒤 아파트로 돌아왔다가 다시 동구청 지하주차장과 대형마트를 지나 아파트

로 되돌아 오는 등 총 7km를 운전했다는 것. ○A군은 이 과정에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1대,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 7대, 마트 주변에서 1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대 등 총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인터넷과 게임에서 운전하는 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으며, 동구청과 마트 등 평소 엄마와 자주 다니던 길을 따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세 미만으로 행사책임 제의 대상이어서 파손된 차량의 보상 문제 등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543,18㎡(469,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